

한국인의 종교의식을 말한다

“정보화 시대 맞는 공동체로 나가야”

본지가 실시한 '한국인의 종교의식조사' 결과,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교가 없으며 종교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...

△설문조사 결과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63.1%로 나왔습니다...

이각법- 지식 정보화 시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과학·기술적 기반에서 흘러나온다...

성태용-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다. 종교가 변화의 양상들을 따라잡아 소화해내고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대중들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었다...

윤원철-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인들은 종교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종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...

△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한국사회에서도 종교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?

이각법- 지역분포로 보면 영남지역에서는 사람들, 특히 불자들이 많이 분포한 부산, 울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...

때문에 한국사회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.

성태용- 종교간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지나가면 불교도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. 그렇게 되면 불자들까지 종교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...

윤원철-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종교가 공적인 부분에 큰 비중을 뒀었다.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봉헌 발언이 나올 수 있었고, 대광고 강의석 학생같이 공통 받는 개인이 생기는 것이다...

△선거 시 후보자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5.4%로 압도적으로 나왔다. 특정 종교 정당설립이 바람직한지?

이각법- 실제로 지난 총선 때 기독교 정당이 있었지만 참패했다. 그것은 종교사회와 정치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다...

성태용- 종교 정당은 양날의 칼과 같다. 세속적인 문제에 종교가 결합할 때 잃는 것이 더 많다.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...

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△종교 선택 기준으로 '마음의 평안을 위해'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...

성태용- 지금 형태의 템플스테이는 문제가 있다. 사찰에서 전통만 강조하면 안 된다. 참여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

까, 이것을 통해 불교적 양식을 얻고 도시에서 지냈던 심신을 풀고 간다는 측면에서 서러한 현재의 템플스테이는 문제가 있다...

윤원철- 저가거리에, 자기 동선 안에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. 현재 도심 포



이각법 교수, 성태용 교수, 윤원철 교수

화합·협력 통한 성숙한 모습 필요 권위의식·불친절 현대화 걸림돌

교리 해설·경전 한글화 등 시급 사부대중 함께하는 생활불교 절실

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. 돌아갈 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...

이각법-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를 지도한 경험에 비춰볼 때, 부중불감(不淨不減) 불구부정(不垢不淨)의 의미라면 모를

교당이 많이 생겼지만 천주교 성당처럼 고평하게 기도하고 나오는 공간이 필요하다...

△과거에 믿었던 종교를 현재 믿지 않는 이유로 '교리 때문에'라는 응답이 높았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?

성태용- 불교는 교리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. 또 교리 자체에 대한 기본 통일도 없고 정리된 교육안도 없다...



◆참석자

- 이각법 교수(한국정보통신대 경영학부)
성태용 교수(건국대 철학과)
윤원철 교수(서울대 종교학과)
사회: 본지 편집국 김원우 차장

트림을 알려주는 스님도 많지 않다. 통일적인 교리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있어야 한다...

윤원철- 불교의 경우 사람들이 교리를 알고 보니 안 맞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교리인지 헷갈리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 떠나는 것 같다...

이각법- 학력이 낮을수록 불교를 많이 믿고, 학력이 높을수록 개신교를 많이 믿는다. 연령대를 보면 불교는 50대가 가장 많고, 30대가 가장 취약하다...

△본인 신앙생활에 대해 개신교신자 71.2%는 절하고 있다는 답을 한 반면, 불교신자 42.8%는 잘 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

윤원철- 한국불교는 선종이 주류고 모 델이 출가 수행자다. 재가신자로서 신념이 크고, 자긍심이 있으며, 수행을 잘해도, 이런 구조 때문에 자신이 잘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...

성태용- 재가불자들은 이중생활자다. 절에서는 열심히 고만하다가도 세속에 나가 서는 세속적으로 산다. 세속생활과 종교생활이 이중적으로 굴러간다...

이각법- 수행방법에 대해 너무 경직되 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. 특히 조계종

에서는 간화선을 강조하는데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불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. 또 의식이 너무 길거나 불성실한 법문 때문에 법회를 피하는 사람도 많다...

△개신교신자 31.7%가 무종교인에게 자신 의 종교를 적극 권유하지만, 불교신자 84.6%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며 별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...

이각법- 부처님의 전법은 당신이 수행의 모범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행위였다. 따라서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, 모범되는 생활을 해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켜야 한다...

성태용-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. 불자들에게 공동체라는 이념이 없기 때문이다. 재가자들의 공동체, 즉 사부대중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포교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...

윤원철- 지금까지 숫자로서 좌담을 했지만 결국 양쪽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로 귀착된다.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의 후광이 세상을 비추게 하는 것이 불교의 방식이다...

정리·남동우·유철주·김강진 기자
사진·박재원 기자

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featuring a Buddha statue and the text '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' (We think about life and earth). It includes the university's logo and name in Korean and English.